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내가 채소를 가꾸는 산자락 조각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집에서 너무 멀고, 농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거기다 갖가지 채소를 심어놓고, 봄부터 가을까지 철따라 푸성귀를 뜯어다 먹은 지는 꽤 여러 해 되었다. 덕분에 채소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 일이 거의 없다.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를 우리 집에 공급하고, 남은 채소를 둘째둘레 여러 집과 나누어 먹는 것이 내게는 적잖은 재미다. 앞집 아주머니는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은 무공해 먹거리라고 여간 반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농사가 즐겁다. 얼마 전 배추를 뽑아 김장을 했다. 무를 뽑아 동치미도 담갔다. 이렇게 우리 집 가을걷이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텃밭 정리를 하다가 우연찮게 풀속에 숨어있는 잘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그야말로 호박이 널물 채 썰어낸 것이다. 어쩔 일인지 급년에는 제대로 된 늙은 호박 하나를 수확하지 못한 터였다. 비가 자주 내린 탓일 것이다.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있는데다 부기가

빠지게 하는 효능이 있어 가난한 집 산모가 미역 대신 호박국을 끓여 먹거나 이노 작용을 한다 하여 약용으로 곧잘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늙은 호박을 귀하게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늙은 호박이 이른바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옛

풍정이 그리워 해마다 내 밭의 가장자리에 호박을 심는다. 내 작은 채소밭은 들레의 호박꽃이 피면서 평화의 정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호박은 봄·여름·가을 없이 즐기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준다. 호박순과 호박잎은 따도 따도 새로 돋는다. 호박줄기가 멀리 달아나지 못하도록 적당한 길이 때 그 순을 따고, 그 순에서 두 번째 호박잎을 따다. 그래야 호박이 잘 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딴 호박잎이 연하다. 나는 호박잎 따는 법을 어머니한테서 배웠다. 살짝 짠 호박잎을 된장에 적서 밥순갈에 얹거나, 찜으로 먹는 것은 분명 여름철의

그렇게 쉽지 않다. 우선은 씨가 좋아야 하고, 밑거름이 풍부해야 한다. 좋은 씨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거름이 모자라면 호박은 늙다가 썩는다. 늙는데도 영양이 필요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지극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크고 잘 생긴 그 씨수를 보고 애호박 때 따지 않아야 한다. 잘 생긴 놀일수록 따고 싶은 유혹이 따르지만 애써 참아야 한다. 햇볕을 받아 곱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라도 잡아주어야 한다. 남의 손을 탈세라 매일같이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늙은 호박 하나를 만드는 데도 순풍우조(順風雨調), 하늘의 도움과 땅의 지력(地力), 그리고 사람의 정성 등 이른바 천지인(天地人) 삼재가 합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내 호박처럼, 아주 가끔은 풀속에 숨어서 저 혼자 늙은 호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 일찌감치 따 먹었을 것을 풀속에 있어 화를 면한 것이다. 깊은 산속, 비탈에 자란 나무가 대들보가 된다는 노장철학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나 크고 잘 생긴 늙은 호박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잘 생긴 늙은 호박 하나를 앞에 두고 나는 생각한다. 호박 하나가 늙기도 이렇게 쉽지 않겠는가. 잘 늙어지지, 추하지도 구차하지도 않게.

〈인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덩이 호박 앞에서

별미다. 거기다 애호박은 어떻게 그리도 많이 열리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름 내내 수도 없이 들었다. 손국수나 수제비에 송충성듬 떨어 넣었을 때의 그 구수하고 깊은 촌맛이나, 새우젓 넣고 끓인 호박찌개의 맛은 또 얼마나 개운하고 깔끔한지, 여름 한철 입맛을 돋우기에 넘쳐났다. 그러나 뭉치 뭉치 해도 호박의 진면목은 늙은 호박에 있다. 크고 잘 생긴, 하얀 분을 바른 늙은 호박이 널려있는 호박밭의 풍요로움을 본 적이 있는가. 잘 늙은 호박은 확실히 풍요로운 결실의 상징이다. 그러나 크고 잘 생긴 늙은 호박을 얻기란

시설

대선후보 광주·전남 공약 '빈집데기'라니

제 17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이 광주·전남지역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공약의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장밋빛 청사진이거나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거나 '재탕 공약' '베끼기 공약'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공약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올 대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대선을 그동안 표표처럼 달고 다녔던 '낙후지역'에서 탈피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엑스포와 서남해안 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 현안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각 정당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대부분 단기사업과 민원 사업 공약에 그치고 있다. 목포대 의대 개설, 광주은행 본리 매각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문화수도

광주' '서남해안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제시됐던 지난 대선 공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R&D 특구 지정, 광안만권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구상단계에 있는 '재탕, 삼탕 공약' '베끼기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대형 지역현안사업 공약은 예산 확보방안 등 구체성이 없어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천가능한 공약이 되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현실적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민들이 마음으로 믿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끝내 고집할 건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해 정부의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전국 44개 광역 및 기초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렸다. 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의회로서 수모가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인하를 권고한 지방의회는 경기도 광역의회와 43개 기초의회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제동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의회 등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 시,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 등을 제외한 지방의회가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광역의회는 평균 13%, 기초의회는 무려 38%를 올렸다. 인하 권고를 받은 기초의회에는 전남

의 6곳이 포함돼 있다.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장성군, 곡성군 의회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기초의회들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광주시의회가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2% 올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남지역 기초의회가 유급제 시행 1년도 못돼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은 응당할 수 없다.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4.7%인데 비해 전남은 훨씬 못미친 10.6%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불쌍스럽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의정비를 대폭 올린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사업 불이익 등은 당연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송인성. 광주에는 무등산 도립공원, 사직공원 등 많은 공원이 있는데 '푸른길 공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푸른길 공원'은 광주의 역사와 애환을 같이 했던 광주도심을 관통한 경전선 철도 중 광주역에서 남광주역을 거쳐 호천역에 이르는 10.8km를 외곽으로 뚫고 그 중 약 7.9km의 폐선부지를 '푸른길 공원'으로 이름하여 조성 중에 있다.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이 공원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간직한 꽃과 나무와 숲 그리고 습터가 있게 된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원숭이들의 경제학. 올해 태어난 일본 원숭이가 철창 사이를 비집고 나와 버렸다. 이 원숭이 뿐만 아니다. 일본 원숭이들의 철창 탈출 역사는 오래됐다. 벌써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 정도다. 이쯤되면 철창 탈출이 아닌 정지적 문화 행사다. 이른바 '철창 밖 세상 체험 학습'이다. 하나의 돌출된 행동이나 사건이 여러 사람들에게 모방되고 습관처럼 이뤄지다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문화라고 본다. 일본 원숭이들의 이같은 행동도 규모는 작지만 문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철창을 뛰어넘은 녀석의 혁명적인 행동 뒤 이후부터는 익숙해지고 이제는 습관처럼 이어져 오는 것이다. 특히 어떤 행동이 '문화'화 하려면 거부감을 느끼는 세력이 많지 않아야 한다. 철창 밖으로 뛰어 나가는 원숭이 부모들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인간들

無等鼓.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조 토레(67) 감독은 몇 달 전만해도 세계 최강, 뉴욕 양키스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대접받았다. 그는 지난 96년 양키스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12년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쥐는 등 월드 시리즈에서 4회 우승한 명감독이다. 랜디 존슨, 데릭 지터, 제이슨 지알비 등 최고의 스타들이 그의 지도로 명성을 쌓았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값비싼 알렉스 로드리게스, 입단 이후 토레의 가르침으로 11년동안 최고의 클로저로 성장한 마리아노 리베라, 포수 호르헤 포사다도 한술밥을 먹은 그의 애제자들이다. 올해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이들 셋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토레 감독이 구단주로부터 연봉 삭감에, 1년계약이라는 모욕적인 제안을 받고 팀을 떠나려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가 떠나면 우리도 떠난다"며 사제간의 강한 의리를 담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해야. 여수가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약 1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최까지 4년이 남은 이 시점부터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이 예상되는데 여수에서 그들이 우왕좌왕 할

일마 전 전화가 한 번 울리더니 그냥 끊겼다. 전화번호를 보니 '02-2052-12XX'다.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해 볼까 하다가, 한번 울리고 말았으니 잘못 걸린 전화로 생각해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참 지난 뒤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역시 같은 번호로 한 번 울리고 끊겼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언제라도 1번 누르시면 대출상담을 해 드립니다. 대출 상담 후 무방문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귀하의 신용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서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립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서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